우수 귀어귀촌인 최우수상 여수 정근영씨

영광 구수대신어촌계 어울림마을 우수상 수상 귀어귀촌종합센터 평가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가 2022년도 우수 귀어귀촌인 최우수상에 여수에서 숭어양식장을 운영하는 정근영(36)씨를, 귀어인과 기존 어민이 어울려 잘 살아가는 어울림마을 우수상에 영광 구수대신어촌계를 각각 선정했다. 종합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 사례와 귀어귀촌인·다문화인·기존 주민 간의 공동체 문화 형성 우수사례를 발굴해 매년 5명의 우수 귀어귀촌인과 5개소의 어울림마을을 포상하고 있다.

종합센터는 지난 4월 15일까지 접수된 우수귀어귀촌인 및 어울림마을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2023년 국내외연수 참여 기회를 줄 방침이다.

정근영씨는 체계적인 가두리 숭어양식장 운영을 통해 등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어촌공동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귀어 4년차에 접어든 정씨는 경남 거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지난 2019년 12월 어촌계 가입 장벽이 거의 없는 여수 남면 화태마을로 귀어했다. 약 3000㎡ 크기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숭어 30만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지난해 100t의 숭어를 출하해 약 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우수귀어귀촌인 대상은 경북 포항의 박정석씨, 정씨와 같은 최우수상은 경남 거제의 이지훈씨, 우수상에는 전북 고창의 박원씨, 경기 여주의 양상모씨 등이 선정됐다.

어울림마을 부문 우수상을 받은 영광 구수대신어촌계는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문석 사무장 등 귀어 희망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귀어인과 기존 어민들이 풍어제를 다시 복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 귀어인과 기존 어민들이 도시민 직거래, 관광객 유입 등을 위해 법인을 구성하는 등 소득 향상에도 기여했다.

어울림마을 부문 대상은 충남 태안 마금마을, 최우수상에 강원 강릉 사천진마을, 경북 포항 조사리마을, 영광 구수대신과 같은 우수상에 경기 여주 여주어촌마을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종합센터는 오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귀어귀촌 박람회' 개막식에서 우수 귀어귀촌인과 어울림마을 선정자를 시상하고, 성공 비결에 대한 전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영 센터장은 "앞으로도 우수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 사례와 어울림마을의 공동체 문화 형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소멸 위기의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자개의 영롱함에 빠져보세요

농업박물관, 21일 체험교실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축소하거나 폐지한 각종 체험행사를 활성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자개공예 체험교실'을 연다. 전통 자개공예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고, 현대 감각에 맞게 전승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개공예〈사진〉는 전복, 소라 등 조개껍데기를 가공해 공예품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래 그 기법이 정교하고 다양하게 발전했다. 자개 빛깔이 멋스럽고 고급스러워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문양 장식으로 쓰임새가 좋다.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자개공예를 쉽게 배우고, 솜씨를 뽐내 나만의 소품을 만들어 간직할 수 있다. 체험은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자개 거울', '자개 그립톡' 만들기, 두 가지로 나눠 오전과 오후 각각 50명씩 선착순 100명을 접수해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또 6월 3일 창포머리감기 등 단오체험행사, 11일 전통모내기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과 드론체험교실 등을 준비하는 등 코로나사태로 2년여 동안 제대로 열지 못한 각종 체험행사를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국서 가장 많은 27개 마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제공

전남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도시민을 전남으로 이끌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일정 기간 거주공간과 농촌·영농체험, 지역문화 탐방 등 지역에 특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할 도내 21개 시·군 27개 마을을 선정하고, 제1기 참가자 145명을 모집해 마을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형 등 3개로 나뉜다. 특히 도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형은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이를 취·창업 기회로 연결한다. 현재 청년 3명이 함평 해당화마을에서 해당화와 허브를 활용한 화장품·향수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확인 결과 올해 전국 시·도에서 115개 마을을 운영하는데 이 가운데 전남이 가장 많은 27개, 경북 20개, 충북·경남 각 16개, 전북 14개 등으로 나타났다.

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국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마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고, 지역에 맞는 체험·영농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의 만족도도 높다"며 "이들이 전남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청 공무원, 공정무역 알리기 팔 걷어

인식 개선·윤리적 소비 홍보활동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2일 도청 윤선도홀에서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했다. 〈사진〉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다. 이번 홍보활동은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해 도민이 함께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행사에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공정무역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엽서와 공정무역 제품인 사탕을 배부하며, 공정무역의 가치 등을 상세히 알렸다.

별도 마련한 홍보 부스에선 도청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퀴즈 맞히기 게임을 진행하고 사은품을 증정했다. 공정무역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와 함께 텀블러를 갖고 부스를 찾은 방문객에게 공정무역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박창환 부지사는 "이번 홍보활동은 공정무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리적 소비를 촉진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전라남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공정무역 활성화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업기술상담 콜센터, 초보 임업인 육성 역할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연 190여 건 상담 맞춤형 컨설팅

임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임업 분야 정보제공 및 기술지도 등을 위해 설치한 '임업기술상담 콜센터'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월 개설한 임업기술상담 콜센터가 190건 이상의 초보 임업인들을 상담해 각종 기술을 교육·지도했다. 콜센터는 귀산촌인·임업인 등의 임업 진입을 돕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과 연계되는 수목, 산림버섯 등의 재배 및 관리기술, 산림정책 및 경영지원 등 미래 임업인 육성과 임업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임업 분야 공공기관 근무경력 20년 이상의 전문컨설턴트 2명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전담컨설턴트 외에도 분야별 자문위원을 별도 구성해 복합적인 전문가 상담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또 최근 산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 임업기술 콜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 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속적 사후 관리를 통한 신뢰도 향상으로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콜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도 한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해 2018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임업소득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종균 발효식품 사업 전국 최다 선정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공모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곳이 선정됐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은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장류·식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전통식품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20개소를 선정했다.

전남에서는 순천 순천송광㈜, 곡성 ㈜초정, 강진 참좋은된장 강진토하젓, 해남 태평농원·붙두막식품이 선정돼 전통식품 시장 선도에 나선다.

전남도는 업체당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종균 생산·보급비, 제품 제조기술·품질관리 등 컨설팅비, 제품개발 및 상품화에 사용한다. 사업 대상자는 종균 보급기관과 선정업체 간 협약을 한 후 종균 선정 및 발효 적성평가, 시작품 제조 단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